

하나님의 인생훈련(18) - 상실의 훈련(시89:38-52)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상실을 경험한다. 이런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더욱 성숙해져가고, 삶에 대해 이해가 깊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안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상실의 경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상실은 단지 고통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오늘 시편에서 ‘에단’이라는 한 경건한 사람이 상실로 인한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고 있다. 시인이 잃은 것은 왕의 지위(39절), 나라(40절), 재산(41절), 명예(44절)이다. 그 결과 시인은 극심한 상실을 경험하며, 삶의 덧없음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다(47절).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몇 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 (1)주의 진노를 당할 때(46절), (2)지인의 죽음을 경험할 때(48절), (3)억울하게 비난 받을 때(50-51)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인생의 상실과 고통의 경험 속에서도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으로 딛고 일어선다(52절). 이것이 ‘**상실의 훈련**’이다. 과연 상실의 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상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본문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두 번이나 아멘을 말한 것은 시인의 신앙적인 결의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동의라고 말한다. 즉, 세상에 실망하고, 마음 둘 곳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상실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 큰 것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의 것들에 대해, 즉, 건강 주시고, 편안한 잠을 주시고, 멀쩡한 팔다리를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된다(시3:5).

2. 상실은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게 해 줍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던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나지 않는다(눅12:20). 상실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된다. 오히려 누구보다 상실의 훈련을 잘 받아낸 사람이다. 그는 상실을 통해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욥1:2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들을 도로 찾으실 때까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

3. 상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합니다.

아마도 상실의 가장 큰 유익은, 비로소 동일한 아픔으로 고통 받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먼저, 상실을 통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유연해 지면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음의 용량이 커지고, 너그러워지면서 타인의 실수에 대해 관용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감지수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 인물 중 바울이 그야말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 건강도, 물질도,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주림과 비난과 죽음과 같은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우리도 상실을 통해 사람을 돕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인생훈련(18) - 상실의 훈련(시89:38-52)

1. 마음 열기 - 잃어버린 물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 경배와 찬양 - 찬 620장(여기에 모인 우리)

주 은혜임을

Words by 정선경
Music by 소진영

주 나 의 모 습 보 네 상 한 나 - - 의 맘 보 시 - 네
주 사 랑 내 게 있 네 그 사 랑 - - 이 날 채 우 - 네

주 나 의 눈 물 아 네 홀 로 올 - - 던 맘 아 시 - 네
주 은 혜 내 게 있 네 그 은 혜 - - 로 날 세 우 - 네

세 상 소 - 망 - 다 사 라 져 가 - - 도 - 주의 사 랑 - 은 끝 이 없 으 - 니 -

살 아 가 - 는 - 이 모 든 순 간 - - 이 - 주 은 혜 임 을 - 나 는 믿 - 네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본문과 말씀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인간은 상실을 통해 더욱 성숙해져가고, 삶에 대해 이해가 깊어갑니다.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철이 들게 만들었던 상실의 경험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또 어떤 면에서 성숙해 졌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 (3) 시인은 상실을 통해 삶의 덧없음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지만 신앙으로 딛고 일어섭니다. 이와 같이 내가 받은 상실의 훈련을 통해 오늘 설교처럼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사역나누기

- (1) 중보기도와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 (3) 제직세미나를 마치고 새해에도 맡은 직분에 충성하도록 기도합시다.